

상고·삼국 시대 음악 기원전~기원후 676년

상고 시대와 삼국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.

상고 시대

상고 시대에는 풍요로운 수확과 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천 의식이 음악 활동의 중심이었다.



▲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



▲ 제천 의식



▲ 고대 악기(뻘피리, 현악기)

삼국 시대

삼국 시대에는 다른 나라와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. 고구려에서는 왕산악이 거문고를 만들었으며, 백제에서는 미마지가 가면극인 기악(伎樂)을 일본에 전하였다. 신라는 가야에서 망명한 우륵에게서 가야금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으며, 우리나라 최초 음악 기관인 음성서를 설립하였다.

고구려



▲ 무용총 고분 벽화 '거문고 타는 신선'

백제



▲ 백제 기악(伎樂)

신라



▲ 가야금을 연주하는 '신라 토우'

❖ 백제 금동 대향로에 새겨진 다섯 악기를 조사해 보자.



▲ 백제 금동 대향로

백제 금동 대향로(국보 제287호)는 백제 문화를 보여 주는 유물로 1993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발굴되었다. 향로 상단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5명의 악사가 새겨져 있다.